04□□□_01□□□ 12. 7. 19. □□ 7:34 Page 89

한국문화기술 통권 제13호 2012.06. pp.89~122

문학교육 내용의 선정 및 구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tents Selection and Arrangements for Literary Education

유지형(단국대 박사과정)

차 례

1. 서론
1) 연구목적
2) 연구내용
3) 선행연구 검토
2. 2007 개정 문학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분석
1) 텍스트의 생산, 수용, 소통 중심의 교육과정
2) '맥락' 의 설정
3. 문학교육 내용 구성의 체계화 방향
1) 문학교육의 내용 구성 방향
2) 문학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4. 결론

1. 서론

1) 연구목적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영역은 문학교육목적의 달성에 관계되는 일체의 계획과 실천이며[1] 일정한 프로그램 아래 전 과정을 마칠 때까지 학습해야할 목표와 내용, 그 학습을 위한 연한과 시간 배당, 그리고 교수와 평가 방법 등을 규정한 문학교육의 전체 계획 혹은 지침[2]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은 교육을 통하여 전수되는 계획된 교육내용을 뜻하는 것으로, 학교교육을 통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

1) 최현섭 외,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2002, 72쪽.
2) 교육인적자원부,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안 토론회 자료집』, 2006.

04□□□_01□□□ 12. 7. 19. □□ 7:34 Page 90

는 안내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또한 교과교육에서 교육과정은 학습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이자 토대이며 교과서를 집필하고 교실수업을 진행하는 데 중요한 지침들을 제공해 주기도 한다. 교육과정은 사회의 변화 혹은 개인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변화 발전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부분, 혹은 전체가 개정될 수 있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문학교육,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영역 내용 구성에 대한 많은 연구와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와 모색이 끊임없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 현장에서의 문학교육은 크게 향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중등학교의 문학교육은 사실상 국가 단위의 교육과정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학영역은 문학교육의 목표, 내용, 방법 등을 총괄해서 담고 있는 만큼 총체적인 교육지도라 할 수 있으며, 이 지도가 담고 있는 목적과 내용에 따라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문학교육의 모습은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 구성 방법의 합리성과 적절성에 대해서 진지하게 탐구하고 체계화해 가는 과정의 연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 사회는 급변하고 있고 다양한 문화의 공존 속에 교육적 환경이 변하면서 매체교육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학습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완하고 수정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또한편으로는 기존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처방이라고 할 수도 있다.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은 이러한 급변하는 시대 상황과 사회적 요구에 따라 7차 문학교육과정을 수정 보완하는 '수시·부분 개정'이라는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따라서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제7차 교육과정의 기본 철학과 체제를 유지하면서,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운영상

04□□□_01□□□ 12. 7. 19. □□ 7:34 Page 91

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수준에서 개정을 최소화한 것이기 때문에 제7차 교육과정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내용체계에 있어서는 7차 교육과정 때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게 사실이다.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의 의의는 이러한 맥락에서 일단 진일보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어느 정도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으며,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 또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따라서 문학교과를 담당하고 있는 교사는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의 내용을 절대적 '경전'으로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자세보다는 학교, 혹은 교실수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상황에 맞게 내용체계를 재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교육현장에서 두드러지는 문학 수업의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교육과정의 합리적이고 적절한 내용의 구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문학교육과정의 내용체계는 문학교과 각 영역의 교육내용을 범주화하여 제시함으로써 문학수업에서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내용 체계를 검토해 보면 내용을 어떻게 범주화했는지, 어떤 내용을 중요시하고 있는지, 각 영역의 관계는 어떠한지 등 문학교육과정 내용의 특징을 전반적으로 알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문학교육과정 중에서 특히 내용체계와 구성에 중점을 두어 우리나라의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을 중심으로 문학교육과정에서 구성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문학교육 내용의 선정과 구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찰할 것이다. 먼저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우리나라의 문학교육 논의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문학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바람직한 문학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토대로 향후 문학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을 어떤 방향으로 구성해 가

04□□□_01□□□ 12. 7. 19. □□ 7:34 Page 92

는 것이 바람직할지 연구하는 것을 본 논문의 목적으로 한다.

2) 연구내용

우리나라 국어교과 문학영역을 중심으로 문학교육과정의 고찰을 위한 본 논문의 구체적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문학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특성과 교육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교육내용을 분석한다.

둘째, 위의 내용들을 근간으로 우리나라 2007 개정 문학교육과정의 문학교육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그 문제점을 살펴 문학교육내용 구성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일종의 문헌연구로서 교육과정 문헌 자료의 분석과 내용 파악에 중점을 두어 향후 문학 교육 내용의 구성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사용된 문헌은 다음과 같다.

① 우리나라 7차 및 2007 개정 국어교과 문학영역 교육과정 및 그 해설서

이 논문에서는 문학교육과정을 분석하는 준거로 우리나라 제7차 및 2007 개정 교육과정의 5개 항목인 성격, 목표, 내용, 교수학습방법, 평가 중에서 이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성격, 목표, 내용의 세 가지 준거를 선정하였다. 특히 국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교육내용의 분석을 통하여 중심이 되는 구성 원리를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내용체계의 분석을 통하여 내용요소 구성의 흐름과 체계를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 문학교육 내용 구성의 시사점을 찾아보았다.

04□□□_01□□□ 12. 7. 19. □□ 7:34 Page 93

3) 선행연구 검토

우리나라에서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는 70년대 후반에 들어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된 것은 90년대 이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초창기 문학교육에 대한 연구는 체계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문학이론에만 치우친 연구는 단편적인 텍스트 하나의 가치를 따지는데 급급하였다. 1979년 김인환의 『문학교육론』[3]을 시작으로 문학교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표적인 연구와 성과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중신은 『문학교육의 이해』에서 문학교육을 '문학의 역사'라고 규정하고 문학교사는 문학전문가가 되어야 한다고 했으며, 궁극적인 문학교육의 목표를 학생들의 문학텍스트 읽기 능력의 함양으로 보았다. 문학교육의 중심을 작가나 작품에 두기보다는 학습독자에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 그리하여 문학작품자체에 대한 연구보다는 '문학의 소통과정, 즉 문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읽히는가'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에서는 문학의 특성을 역동성과 개념의 개방성(開放性)으로 보고 있다. 문학의 역동성은 문학을 물적 대상으로 놓고 작품의 담화구조(談話構造)를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문학은 작가 · 작품 · 독자의 상호 주관적이며 역동적인 작용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문학은 살아서 작용하는 인간적인 가치의 창조물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은 문학교육은 문학의 구체적인 작용적 본질을 포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문학교육을 문학현장의 개념으로 파악하면, 문학교육은 고형적, 객관적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인간의 삶

3) 김인환, 『문학교육론』, 평민사, 1979.

04□□□_01□□□ 12. 7. 19. □□ 7:34 Page 94

과 세계의 구조를 경험할 수 있으며, 문학에 대한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접근이 가능하고, 학습의 주체로서 인간을 강조할 수 있다고 한 점이 주목된다.[4)]

박인기는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이론』에서 문학교육의 이론화 노력의 일환으로 문학 교육과정의 구조를 규명하고 있으며, 문학교육과정 현상을 체계적으로 검색하고 비판할 수 있는 논리적 기제를 제공하고 있다.

우한용 외 『문학교육과정론』에서는 문학교육의 이념, 목표, 내용체계 등 거대 체계와 문학교육의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구체성 등을 포함하는 미세체계를 설정하여 문학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별 논의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문학 교육과정에 대한 재검토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김대행 외 『문학교육의 탐구』에서는 문학교육의 정체성 수립을 위해서 문학교육에 대한 원론적인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논의의 결과가 문학교육 현장에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대규는 『문학교육과 수용론』에서 문학교육을 상상력 교육으로 보고 텍스트의 읽기를 통한 학습 독자들의 상상력 신장이야말로 기존의 지식 중심의 문학교육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보았고 대안으로 수용이론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수용이론은 문학과 문학교육에 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방법론이라는 것이다. 수용론적 시각의 문학교육은 텍스트, 작가, 독자를 새롭게 바라보게 했을 뿐 아니라 교수·학습 행위를 역동적이며 상호 교섭 작용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검토를 통해서 기존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와 연구를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문학교육에 대해 학자들마다 각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학습자들의 문학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문

4)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제5판)』, 삼지원, 2007. 32쪽.

04□□□_01□□□ 12. 7. 19. □□ 7:34 Page 95

학교육의 지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교재의 선정과 교과서의 집필, 교육과정의 개정, 그리고 문학교육학의 체계화 방향은 모두 문학교육의 실천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개선하고 바람직한 문학교육을 추구하는 과정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학교육의 체계적 이론화 작업은 문학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준거 틀이면서 세부적인 연구 방향의 기초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2007 개정 문학교육과정의 내용체계 분석

1) 텍스트의 생산, 수용, 소통 중심 교육과정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개별적이고 독립적이며, 탈 맥락적인 전략·기능의 학습 경험을 지양하고, 한 편의 텍스트[5] 읽기, 한 편의 텍스트 쓰기 경험을 지향한다는 점이다.

5) 최종적으로 고시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텍스트'라는 용어를 듣기·말하기 영역에서는 '담화'로, 읽기·쓰기 영역에서는 '글'로, 문법영역에서는 '국어자료'로, 문학영역에서는 '작품'으로 각각 바꾸어 사용하였다. 최초 시안의 '텍스트'라는 용어는 단순히 '문자로 된 글'을 넘어서는 개념으로 '영화텍스트' 등의 용법에서 볼 수 있듯이 '텍스트'는 구어, 문어는 물론 복합 매체로 이루어진 구성물을 포함하는 의미의 담화체를 지칭하는 용어로 설정되었다. 특히 개정 2007 개정 교육과정이 표방하고 있는 '텍스트 수용 생산 중심 교육과정'에서 텍스트는 단지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수용·생산이 교육의 목표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은 지시하고자 하는 대상에 부합하는 적절한 용어를 대체하기 어려웠던 까닭에 비록 우리말이 아니긴 하나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어교과에서 핵심 개념을 외래어로 쓴다는데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고, '듣기 자료', '국어자료'등 '자료' 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권고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졌으나 대체할 만한 적절한 용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7차 교육과정과 같이 '실제'라는 말로 포괄을 하는 가운데 '텍스트'라는 용어 대신 듣기와 말하기 영역에서는 '담화', 읽기와 쓰기 영역에서는 '글', 문법 영역에서는 '언어자료', 문학영역에서는 '작품'이라는 용어로 쓰이게 되었다. ; 이재기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6-6, 60쪽.
이는 결국'텍스트'를 중심으로 영역 간 분절을 극복하고 통합적 활용을 하고자 했던 교육과정의 의도를 실현하는데 오히려 한계가 되고 말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모든 용어를 아우를 수 있는 용어로 '텍스트'가 적당하다고 보고 '담화/글/언어자료/작품' 전체를 지칭하는 말로 '텍스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04□□□_01□□□ 12. 7. 19. □□ 7:34 Page 96

(1) 영역별 · 학년별 텍스트의 체계화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에서는 영역별, 학년별로 텍스트 유형을 체계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2) 텍스트 생산 · 수용활동을 중심으로 성취기준 진술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에서 '성취기준'은 텍스트의 생산·수용 능력을 중심으로 기술하였다. 즉, 각 학년, 각 영역에서 어떤 텍스트의 생산, 수용 능력을 신장시켜야 하는지를 성취기준을 통해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성취기준은 학습목표, 학습과제의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교수자의 측면에서 보면 가르침의 결과이고, 학습자의 측면에서 보면 배움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처럼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에서는 '텍스트'를 중심으로 그 수준과 범위를 정하고 이러한 텍스트를 수용하고 생산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능, 맥락[6]으로 내용 요소를 선정하고 있다.

그만큼 2007 개정 문학교육과정에서는 '텍스트'를 정면에 내세우고 그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도 '실제'의 범주를 설정하여 텍스트를 다루었으나 이때의 텍스트는 본질(지식), 원리(기능), 태도를 익히는데 활용하고, 참고해야할 '자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지식 기능이 중심이 되고, 텍스트는 주변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에서 텍스트는 교육 내용을 규정하고 통어하는 원리로서 존재한다. 이를 통해 그 동안 물구나무 선 내용체계를 다시 '거꾸로' 세움으로써 문학교육 활동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하였다.[7]

---

6)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에서는 '지식', '기능', '맥락'으로 문법에서는 '지식','탐구', '맥락'으로, 문학에서는 '지식', '수용과 생산', '맥락'으로 설정하고 있다.

04□□□_01□□□ 12. 7. 19. □□ 7:34 Page 97

다음의 7차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표를 비교해보면 그 특징이 확연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표 2〕 제7차 교육과정 문학영역의 교육내용 체계

영역		내 용	
문학	• 문학의 본질 - 문학의 특성 - 문학의 갈래 - 한국 문학의 특질 - 한국 문학의 사적 전개	• 문학의 수용과 창작 - 작품의 미적 구조 -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작품에 반영된 사회 · 문화적 양상 - 문학의 창작	• 문학에 대한 태도 - 동 기 - 흥 미 - 습 관 - 가 치
	•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 - 시(동시) - 소설(동화, 이야기) - 희곡(극본) - 수 필		

〔표 3〕 2007 개정 교육과정 문학영역의 교육내용 체계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 - 시(시가) - 소설(이야기) - 극(연극, 영화, 드라마) - 수필 · 비평	
지 식 ○ 문학의 본질과 속성 ○ 문학의 양식과 갈래 ○ 한국 문학의 역사	수용과 생산 ○ 내용 이해 ○ 감상과 비평 ○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작품 창작
맥 락 ○ 수용 · 생산의 주체 ○ 사회 · 문화적 맥락 ○ 문학사적 맥락	

7) 이재기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 · 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6-6, 60쪽.

04□□□_01□□□ 12. 7. 19. □□ 7:34 Page 98

먼저 전체적인 내용체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7차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영역의 내용요소체계를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대한 태도',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로 구분하고 있다. 반면에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 '지식', '수용과 생산', '맥락'의 네 부분으로 구분하였다. 7차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라는 부분을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7차 교육과정에서 중점이 되었던 '문학의 수용과 창작'의 부분을 '창작' 대신 '생산'이라는 용어로 변경하였다. 또 이러한 텍스트를 가지고 내용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각 학년의 영역에서 다루고 있는 텍스트의 유형 및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학습자가 성취기준에 도달한 결과 생산·수용할 수 있는 텍스트, 또는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학습과정에서 다루어야할 텍스트를 의미한다.[8)]

다음의 〔표 4〕에서는 2007 개정 문학교육과정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해당하는 '문학' 영역의 '작품의 수준과 범위'와 '성취기준'을 재구성하여 제시하였다.

〔표 4〕 작품의 수준과 범위

학년	작품의 수준과 범위	성취기준
2학년	- 운율이 잘 드러나는 짧은 표현이나 시 - 친숙한 인물이 등장하는 시나 노래, 극 이야기, 수필 - 상상이나 환상의 세계를 담은 작품 - 창의적인 발상이나 재미있는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	1)느낌을 살려 노래를 부르거나 시를 낭송한다. 2)문학 작품 속 인물의 모습과 행동을 상상한다. 3)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이야기를 꾸민다. 4)재미있는 말이나 반복되는 말을 넣어 글을 쓴다.
3학년	- 운율, 이미지 등이 잘 드러나는 시, 노래, - 뛰어난 인물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 -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인 세계를 배경	1)문학 작품을 읽고 느낀 점을 말이나 글로 표현한다. 2)문학 작품에는 일상의 세계와 비

8) 이재기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 · 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6-6, 63쪽.

04□□□_01□□□ 12. 7. 19. □□ 7:34 Page 99

	으로 하는 작품	슷한 상상의 세계가 담겨있음을 이해한다. 3)이야기의 흐름을 파악하여 내용을 간추린다. 4)문학 자품 속 인물의 특성을 살려 새로운 이야기를 꾸민다.
4학년	- 운율, 이미지 등이 잘 드러나는 시, 노래 - 영웅이나 위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나 글 - 친숙한 세계 또는 상상적적인 세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1)좋아하는 시를 분위를 살려 암송한다. 2)구성요소에 주목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3)문학 작품에 나타난 인물의 삶의 모습을 이해한다. 4)문학 작품을 일고 떠오른 느낌이나 생각을 바탕으로 감상문을 쓴다.
5학년	- 사건의 전개가 분명한 작품 - 인물이나 배경의 묘사가 구체적인 작품 -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	1)문학 작품에서 인상적인 부분을 찾고 그 까닭을 이해한다. 2)사건 전개와 인물의 전개를 파악한다. 3)문학 작품은 읽는 이에 따라 다르게 수용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4)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부분을 바꾸어 쓰고, 그 의도의 효과를 이야기 한다.
6학년	- 다양한 비유가 사용된 작품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여러 작품 - 인물 간의 갈등이 잘 드러나는 작품 -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작품	1)자신이 좋아하는 문학 작품을 들고 그 이유를 설명한다. 2)문학 작품에 나타난 비유적 특성과 효과를 이해한다. 3)문학 작품을 다른 문학 갈래로 바꾸어 쓴다. 4)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간의 갈등을 이해한다.
7학년	- 언어 표현이 뛰어나고 주제 의식이 분명한 작품 - 인물의 삶과 현실이 잘 드러나는 작품 - 우리 고유의 정서나 언어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여러 작품	1)문학 작품에 드러난 인물의 심리 상태와 갈등의 해결과정을 파악한다. 2)문학 작품의 전체적인 정서와 분위기를 파악한다. 3)역사적 상황이 문학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한다. 4)시어와 일상어에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노랫말을 쓴다.
8학년	- 언어 표현이 뛰어나고 주제의식이 분명한 작품 - 사회 · 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나는 작품	1)문학 작품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파악한다. 2)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문학 작

04□□□_01□□□ 12. 7. 19. □□ 7:34 Page 100

	- 우리 고유의 정서나 언어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 - 문화와 전통의 차이가 드러나는 작품 -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는 작품	품을 해석하고 평가한다. 3)문학 작품의 세계가 누구의 눈을 통해 전달되는지를 파악한다. 4)문학 작품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을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파악한다.
9학년	-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작품 -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 사회·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나는 작품 - 인간 삶에 대한 성찰이 잘 드러나는 작품 - 작품 해석의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비평문	1)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고전 작품을 찾아 일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한다. 2)문학 작품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관련지어 창작 동기와 의도를 파악한다. 3)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비교한다. 4)문학 작품 해석의 근거에 유의하여 비평문을 읽는다. 5)일상의 가치 있는 체험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

〔표 4〕에서 제시되고 있는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활동의 난이도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취기준'과 관련된 텍스트(언어자료)의 수준과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학영역에서의 '작품의 수준과 범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첫째는 학습자가 성취기준에 도달한 결과 생산·수용할 수 있는 텍스트를 의미하고, 두 번째는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과정에서의 텍스트를 의미한다. 이는 학교 단위, 교사 단위의 수준별 학습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5〕에 제시된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를 살펴보면 저학년에서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확장·심화되어 주제의식이 분명한 작품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작품으로, 인물의 삶과 현실,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이해에서 내면세계와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을 그 내용으로 하면서 심화되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9, 10학년에서는 비평문에 대한 텍스트를 활용하여 문학텍스트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감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텍스트의 위계와

04□□□_01□□□ 12. 7. 19. □□ 7:34 Page 101

배열에 따른 성취기준을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의도하고 있지만 '수준별 학습'을 보완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첫째,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며 학년 간 위계가 선명하지 않아서 전체적인 내용이 중복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텍스트가 각 '성취기준'과 '내용요소의 예'에 중복 제시된 경우가 많아서 보편적인 자료에 불과하다.

둘째, 제시된 '성취기준'의 수준과 범위가 지극히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들이라 '작품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언급이 무의미하다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구체적인 작품을 드러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도한 방향과는 다르게 텍스트의 수준과 범위가 학년이 오르면서 확장 심화되고 있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단지 '성취기준'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텍스트의 한 예로써만 작용할 뿐 명실상부한 수준과 범위를 제시하는 지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텍스트 또는 제재의 성격을 명료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상으로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따른 성취기준을 살펴보았다.

(3) 문학 영역의 학년별 내용

2007 개정 문학교육과정에서 학년별 내용을 선정·조직·배열한 원리는 7차 국어과 교육과정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본 경우처럼 우선 내용선정 범주에서부터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학년별 내용에서 두드러진 차이점으로는 ①내용→성취기준, ②'담화/글의 수준과 범위' 항목의 설정, ③'내용 요소의 예' 항목 설정, ④'매체' 관련 내용 요소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2007 개정 문학교육과정에서는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내용 요소의 예' 항목을 신설함으로써 문학교육과정의 내용체계 구성을 보다 상세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04□□□_01□□□ 12. 7. 19. □□ 7:34 Page 102

성취기준 달성을 위해서 다루어야할 텍스트의 유형, 텍스트의 수준, 포괄성, 구체성과 관련된 정보를 '담화(또는 글, 언어자료, 작품) 수준과 범위'에서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각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습득하고 익혀야할 세부 내용을 '지식', '기능', '맥락' 범주에서 추출·선정하여 '내용 요소의 예'에서 제시하였다.[9)]

'내용 요소의 예'는 성취기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교수·학습 상황에서 배우고 가르쳐야 할 실제 학습 내용을 의미한다. 이것은 내용 선정의 범주인 '지식', '기능', '맥락'에서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 요소의 예는 말 그대로 하나의 예시로서 교과서의 개발 단계, 교실 단위의 교수·학습 상황에서 구체화, 상세화, 간략화가 가능하며 교체·통합·변형도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2007 개정 문학교육과정은 교육현장의 자율성을 중시하고 있으며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서 10학년 문학의 내용을 예로 살펴보았다. 다음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성취기준은 '작품의 수준과 범위'에서 선정한 것이며 이에 대해 구체적인 예시를 밝힘으로써 교육과정의 현장 활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의 개발과정에서 실시한 현장 적합성 검토에서 학습 내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의 예시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10)]

9) 이재기, 「중등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특징과 의의」, 『敎員敎育』 제23권 1호, 2007, 26쪽.

10) 현장적합성 검토의견 중 '텍스트의 유형'이 교실 현장의 수업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한 분석 결과 및 반영 방안으로 제시된 텍스트가 '예시'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부각시키도록 한다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재기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6-6, 32쪽.

04□□□_01□□□ 12. 7. 19. □□ 7:34 Page 103

〔표 5〕 2007 개정 문학교육과정 10학년의 '문학'의 예

〈작품의 수준과 범위〉

-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작품
- 인물의 내면세계나 내적 갈등이 드러나는 작품
-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
- 비평적 안목이 뛰어나거나 문학사적 가치가 높은 비평문

문 학

성취기준	내용 요소의 예
(1) 문학이 인간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의미와 효과를 발견한다.	○ 문학의 효용에 대해 이해하기 ○ 작품 읽기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해 토론하기 ○ 작품을 읽고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하기
(2) 문학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한다.	○ 작가의 성격, 취미, 인생관 등이 드러난 부분 찾기 ○ 작가의 개성을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이해하기 ○ 여러 작가의 작품을 읽고 성격, 취미, 인생관 등을 비교하기
(3)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조건에 비추어 문학 작품을 이해한다.	○ 인간의 문제 상황에 대한 문학적 해결 방안 이해하기 ○ 문학을 통한 자신의 삶과 주위 세계 성찰하기 ○ 문학 작품의 의의를 인간의 삶의 문제 속에서 파악하기
(4) 문학 작품에 대한 비평적 안목을 갖춘다.	○ 비평은 작품에 대한 주체적인 판단임을 이해하기 ○ 작품에 대한 판단의 근거 마련하기 ○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비평문 쓰기
(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	○ 문학적 전통의 개념과 의미 파악하기 ○ 과거의 문학적 전통과 오늘날의 문학적 전통 비교하기 ○ 문학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용제시 방식은 위의 〔표 5〕과 같다. 내용제시 방식의 구체적인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7차 교육과정에서 설정된 '내용'이라는 용어는 가르쳐야 할 바와 배워야 할 바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11)]

04□□□_01□□□ 12. 7. 19. □□ 7:34 Page 104

이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을 통해 결과적으로 드러내야 할 내적·외적 특성임을 분명히 명시하기 위해 '내용'이라는 용어 대신 '성취기준'이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둘째, '수준별 활동'의 예가 '내용 요소의 예'로 변화되었다. 이는 교육과정의 수준별 운영 권한 및 학습자 수준의 해석권을 단위 학교 및 담당 교사에게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준별 학습을 의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2007년 개정 국어과교육과정에서는 7차 국어과교육과정과는 달리 '작품의 수준과 범위' 항목을 설정하고 있다. 또 '국어과 학습'을 '국어 교과의 교수·학습'으로 수정하고, 제7차 교육과정의 '지식과 기능과 태도'가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운용한다는 구절에서 '태도'를 삭제하여 제7차 교육과정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는 국어의 교과 교육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동안 혼란스럽게 사용되어 왔던 개념을 국어교육학적 관점에서 재정비한 결과로 추정할 수 있다.[12)]

또한 2007년 개정 국어과교육과정은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지향하였다.

예를 들어 '(5) 수용과 전승 과정에 유의하여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한다,'라는 성취기준에 대해 수업을 전개할 때, 내용 요소의 예로 제시된 '문학적 전통과 의미 파악하기, 과거의 문학적 전통과 오늘날의 문학적 전통 비교하기, 문학사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다양한 작품 감상하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전개하되, 한국 문학의 전통을 설명하는 설명문이나 전문가의 강의를 활용할 수도 있고, 구체적인 작품을 통해 오늘날의 전통과 비교하는 토의·학습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성취기준

11) 이재기 외, 『국어과 교육과정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63쪽.
12) 유영희,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문학영역의 특성 및 지향점'」, 『청어람어문교육36집』, 청어람어문교육학회, 2007, 34~65쪽.

04□□□_01□□□ 12. 7. 19. □□ 7:34 Page 105

과 내용 요소의 예는 학습 환경과 상황에 따라 교사의 자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것이다.

(4) 선택과목 교육과정으로서의 '문학 내용' 체계

2007년 개정 문학교육과정은 7차와 동일한 체제로 1~10학년까지는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운영하고 11, 12학년은 선택 중심 교육과정 체제를 유지하여 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7차에서의 일반 선택 과목과 심화 선택 과목의 이원체제를 심화 선택 과목의 일원 체제로 통합하였으며 7차 교육과정의 심화 선택 과목인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 등 5개 선택과목의 유지와 '매체언어' 과목을 신설하는 등의 체계상의 변화를 가져왔다.

〔표 6〕 7차 문학교육과정과정의 '문학' 내용 체계표

영 역	내 용
1) 문학의 본질	가) 문학의 특성 나) 문학의 기능 다) 문학의 갈래 라) 문학의 가치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가) 문학의 수용과 창작 원리 나) 문학의 수용 다) 문학의 창조적 재구성 라) 문학의 창작
3) 문학과 문화	가) 문학 문화의 특성 나) 한국 문학의 특질과 흐름 다) 세계문학의 양상과 흐름 라) 문학의 인접영역
4) 문학의 가치와 태도	가) 문학의 가치 인식 나) 문학 활동의 능동적 참여 다) 문학에 대한 태도

04□□□_01□□□ 12. 7. 19. □□ 7:34 Page 106

〔표 7〕 2007 개정 문학교육과정의 '문학' 내용 체계표

문학의 성격 ○ 문학의 개념 ○ 문학의 역할 ○ 문학의 갈래
문학 활동 ○ 문학의 수용 ○ 문학의 생산 ○ 문학의 소통
문학의 위상 ○ 문학과 문화 ○ 한국 문학의 범위와 역사 ○ 한국 문학과 세계문학
문학과 삶 ○ 문학과 자아 ○ 문학과 공동체 ○ 문학과 공동체 ○ 문학의 생활화

위의 〔표 7〕과 〔표 8〕에 제시된 7차 교육과정과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 체계'를 비교하여 봄으로써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선택과목의 교육과정에서는 과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민공통교육과정과는 조금 다르게 구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문학교육과정에서 '내용 체계'의 하위 영역으로 역시 '문학 활동'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텍스트를 중심으로 수용, 생산, 소통하는 내용을 심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차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 내용이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에 설정[13]되어 있었지만,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이 영역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여,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수용, 생산, 소통과 관련된 행위를 확대하여 다루고 있다. 즉, 7차 문학 교육과정에서는 문학의 수용과 창작에 관계되어 지식과 활동을 함께 제시하고

13) '(2) 문학의 수용과 창작' 영역은 문학 수용과 창작의 원리를 이해하여 실제로 문학 활동을 하는 데 초점이 있다. 이 중 원리에 관한 내용 항목은 '~을 이해한다.'는 형태로 기술하여 문학 활동에 관한 지식을 강조하고, 실제에 관한 내용 항목은 구체적인 행위 동사로 기술하여 문학 활동의 실천성을 강조하였다. 교육부, 『교육부 고시 1997-15호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국어 -』, 2001, 305쪽.

04□□□_01□□□ 12. 7. 19. □□ 7:34 Page 107

있는 반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문학 활동'에서는 문학의 수용, 생산, 소통을 하는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문학과 삶' 영역에서는 이를 더 심화, 확대하여 무엇을 취지로 수용·생산·소통하는지 그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다. 7차 교육과정에서 문학의 수용과 창작에 대한 내용은 실제 교과서에 구현된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수용, 생산, 소통에 관한 교육 내용보다는 문학 작품에 대한 독자의 창조적 재구성, 내면화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러한 내용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반면에 2007년 개정 교육과정 내용체계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개정 교육과정은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수용, 생산,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문학 활동'의 하위 내용인 '문학의 소통'에 관해서는 '국민공통 교육과정'에서 그 내용을 확대한 매체[14]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한 작품의 수용과 생산까지도 그 내용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2) '맥락'의 설정

7차 교육과정에서 인지적 내용 요소와 더불어 정의적인 내용요소를 균형 있게 다룬다는 취지에서 설정했던 '태도' 범주가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완전히 삭제되어 버리고 그 자리에 '맥락'의 범주를 새롭게 설정하였다. 이는 텍스트의 수용과 생산과정에서 맥락의 비중과 역할을 매우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문학 작품을 학습할 때 수용 맥락과 생산 맥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7차 이전의

14)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각 영역의 교육과정에 매체 텍스트의 생산·수용을 국어과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어 국어 교육의 내용을 확대하고 있다. 국어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인 '국어 생활'이 폐지되면서 '화법, 독서, 작문, 문법, 문학'이 7차 때와 같이 심화 선택 과목으로 설정되었고, '매체언어' 과목이 신설되었다. 이 '매체언어' 과목은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영역에서 담고 있는 매체 언어 관련 내용을 심화 발전시킨 것이다.

04□□□_01□□□ 12. 7. 19. □□ 7:34 Page 108

교육과정에서는 배경지식에 대한 내용을 암기하거나 작품의 이해를 위해 참고적인 내용 정도로 다루어졌으나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맥락'을 비중 있게 다루어 작품 이해의 중요한 요소로 강조하고 있다.

텍스트 생산·수용 활동이 국어과 교육 내용의 중심일 때,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 텍스트 생산·수용 활동에 작용하고,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맥락은 언어활동에 상황성, 역사성, 사회성을 부여함으로써, 학습자의 실제적인 국어 능력 신장, 언어활동에 대한 비판적·성찰적 태도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텍스트 생산·수용 과정에 관계하는 내용으로 지식, 기능 범주 외에 맥락 범주를 설정함으로써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행위를 다양한 맥락에서 조망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서 맥락은 상황 맥락과 사회·문화 맥락을 포함한다. 상황 맥락은 텍스트 생산·수용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맥락으로 언어 행위 주체(화자·청자), 주제, 목적 등을 포함하고, 사회·문화 맥락은 텍스트의 생산·수용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작용하는 맥락으로 역사적·사회적 상황, 이데올로기, 공동체의 가치·신념 등을 포함한다.

맥락 범주의 설정은 언어활동에 시간성, 공간성을 부여함으로써 언어활동을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그동안 국어과 교육과정은 텍스트, 기능·전략에만 몰두한 채, 이들에 작용하는 맥락을 소홀하게 다룸으로써 자신의 언어 행위를 역사적 맥락, 사회적 맥락에서 사고하고, 성찰하는 길을 열어주지 못하였다. 모국어 사용자는 정확하고 유창한 언어 행위에 만족할 수 없고, 자신의 언어활동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성찰할 수 있는 태도와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이것이 맥락 범주를 설정한 이유이다.[15)]

이처럼 맥락의 설정은 학습자가 텍스트를 이해하고 재창조하는 활동을

15) 이재기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06-6, 56~57쪽.

04□□□_01□□□ 12. 7. 19. □□ 7:34 Page 109

더욱 강화하고 깊이 있게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성영은 그의 논문 「2007 개정 국어교육과정의 특성과 문제점」[16]에서 '맥락'이라는 용어는 내용 체계표의 맥락에 비추어보았을 때 그 개념이 매우 혼란스럽고 또한 '지식' 및 '기능'과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이성영은 먼저 같은 내용 체계표 안에 공존하는 '실제'와의 관계를 예를 들고 있는데 '실제'에는 정보 전달, 설득, 사회적 상호 작용, 정서 표현 등과 같이 언어활동의 목적에 따라 분류된 항목들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언어활동의 목적은 '실제'에서 이미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맥락'에서 목적과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되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또한 '지식'과 '기능'은 국어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의 능력을 구성하는 요소지만, '맥락'은 '능력'의 구성 요소가 아니라 '활동'의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맥락'은 지식과 기능이 작용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텍스트와 관련된 지식과 기능이 있는 것처럼, 맥락 관련 지식과 기능도 존재하기 때문에 '맥락'은 '지식' 및 '기능'과 같은 층위로 취급될 수 없다는 것이다.

선택 교육과정에서는 '맥락'의 범주를 더욱 넓혀서 '문학의 위상'에서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시대적 상황에 맞게 세계화 속에서의 문학교육, 한국 문학의 범위 문제, 한민족 문학, 지역 문학 등에 대한 이해를 넓혀서 다양한 사고를 가능하게 하였다. '문학과 삶'에서는 자아와 내면세계, 인간 세계, 다양한 공동체 안에서 문제의식을 갖게 하고 소통하게 함으로써 그 의미를 확대하고 있다.

16) 이성영, 「2007 개정 국어교육과정의 특성과 문제점」, 『우리말교육현장연구』 창간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09.

04□□□_01□□□ 12. 7. 19. □□ 7:34 Page 110

3. 문학 교육 내용 구성의 체계화 방안

1) 문학 교육의 내용 구성 방향

문학교육과정의 구성은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교육의 설계 및 실천과정에 문학을 합목적적으로 투사하기 위한 기본 개념 틀을 구안하는 작업이다. 문학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문제는 교육공동체가 문학교육에 관해 무엇을 의도하고 기대하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왜 문학교육이 필요하며 그것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 그 목적에 이르는 과정은 어떠해야 하며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이를 위해 교수·학습의 상황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등에 대한 함의가 담겨야 한다. 문학 영역의 내용요소를 목표와 관련하여 선정하고 체계화하여 일관되게 구조화하는 것은 체계적인 교육과정 작성을 위한 시작이라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문학적 소통에 참여하여 원활한 문학 활동을 수행하는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문학 활동을 구성하는 현상들을 문학교육과 문학 연구의 성과에 기초하여 범주화할 필요가 있다. '작품의 수용과 생산의 실제'는 이러한 문학 활동의 전제가 되거나 최종적인 결과가 되므로, 이를 교육적으로 조절하기 위한 우선적인 준거 범주가 된다.[17)]

김창원은 '문학교육과정의 구성원리'에서 문학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① 문학교육과정은 문학교육현상의 구조 및 특성을 역동적으로 반영해야 한다.

이는 다른 교과와 대비되는 문학교육의 고유성을 담보하는 조건이 된다. 언어사용의 한 양상이자 미적 활동의 하나로서, 문학공동체의 이데올로기와 문화관습의 구현 양식으로서, 주체로서의 인간이 외부와 교섭

17) 이인제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84쪽.

04□□□_01□□□ 12. 7. 19. □□ 7:34 Page 111

하는 살의 양식으로서 문학행위를 이해하고, 그 근거가 되는 텍스트/컨텍스트의 구조적 특성을 밝혀야 한다. 이는 문학교육과정이 문학교육내용의 평면적 나열이기보다 문학교육현상을 구성하는 변인들의 입체적 구조여야 한다는 뜻이다.

② 국어과 내에서 언어교육과 문학교육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지어져야 한다.

③ 주체와 관련하여 보면 교육은 시점과 시점 사이의 변화를 요구하는 유목적적인 행위이므로, 문학교육과정도 시간성과 발달성을 고려하여 설계·실천해야 한다. 이는 구성과정에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뿐 아니라 '어떤 순서로, 얼마만큼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지금까지의 교육과정은 대체로 이상적인 문학 주체를 가정하고 그가 갖추어야 할 지식·기능·태도를 기술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왔다. 그것은 이상적인 문학주체의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거기에 이르기 위해 어떤 경로를 거쳐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문학능력의 구조와 그 발달성, 문학능력발달에 요구되는 경험구조, 하부 변인들 간의 작동기제 등에 대한 언명이 필요하다.

④ 텍스트와 관련하여 문학을 '전승되어야 할 문화적 유산'으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 서면 문학 자체보다는 문학에 관한 지식 위주로 교육이 경사되게 된다. 5차와 6차 교육과정에 이르러 학생중심, 체험중심의 문학교육관이 대두된 것은 이러한 경향에 대한 반성의 결과라 하겠으나, 그러한 교육과정의 의도가 제대로 해석되어 교수·학습에 투입되는지는 살펴보아야 한다.

⑤ 컨텍스트와 관련하여 문학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는 문학교육이 21세기의 문학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뜻이다. 21세기는 고전적 의미의 문학개념이 해체되고 새로운 탈문학, 혹은 하이퍼 문학이 주류를 이루는 시대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학교육은 학습자 개인은 물론 문학공동체의 심미적, 문화적 아이덴티티

04□□□_01□□□ 12. 7. 19. □□ 7:35 Page 112

를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매체를 확장한다거나, 형식적 실험을 수용하거나 세계문학으로 돌려보자는 발상만으로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 그보다는 그동안의 자기 완결적이고 현상 추수적인 문학교육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현상을 견인해 내는 문학교육으로 전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⑥ 문학교육과정 설계상의 문제로서, 중핵요소를 중심으로 보다 입체적인 교육과정이 구안되어야 한다. 문학교육과 관련되는 중핵요소를 추출하고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조직함으로써 양 위주의 폭넓은 교육에서 중핵개념과 적응력 위주의 질 좋은 교육으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표면에 드러난 잡다한 사실보다는 그 뒤에 숨어 있는 원리와 문학적 필연성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18]

정혜승은 이러한 교육과정 실행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과정의 특성을 교육과정의 내용요소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19]

① 교육과정 내용의 적절성이다. 적절성은 교과 성격 및 목표와의 적합성과 교육과정 실행 참여자들의 요구의 부합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즉, 선정된 교육과정 내용이 교과의 성격을 구현하고 목표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가의 여부, 그리고 교과서 개발자, 교사, 학생 등 교육과정 실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고 중요한 내용이라고 인정하는가의 여부가 중요한 실행 요인이 된다. 만약에 선정된 교육과정이 교과의 성격과 목표에 합치되지 않고, 교육과정 실행 참여자들로부터 필요성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것이 실행되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것이다.

② 실현 가능성이다. 교육과정은 기본적으로 실천의 영역에 있으며, 실천을 전제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교육과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교

18) 김창원, 「문학교육과정의 구성원리」, 『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127~132쪽.
19) 정혜승, 『국어과 교육과정 실행 연구』, 박이정, 2002, 64~65쪽. 여기서 교육과정 '내용'은 '지도내용'이나 '학년별 내용'을 의미하며, 학습목표나 학생들이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으로 기능하는, 교육과정의 핵심적 요소이다.

04□□□_01□□□ 12. 7. 19. □□ 7:35 Page 113

육과정 내용이 실현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실현 가능성은 구체적인 교수 · 학습법 자료로의 번역 및 변환 가능성, 교실 교수 · 학습의 가능성, 학생의 학습 가능성을 의미한다. 교재로, 교사의 수업으로, 학생의 학습으로 실현되기 힘든 교육과정 내용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의도와 내용을 담은 것일지라도 실행되기 어렵다.

③ 명확성이다. 명확성이란 교육과정 내용 취지 및 의도와 초점의 선명성을 의미한다. 그 교육과정 내용이 왜 설정되었는지, 무엇을 의도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포괄하는 교수 · 학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선명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교육과정이 명확하게 진술되지 않으면 투명성이 결여되고, 사용자가 교육과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교육과정 실행 정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

④ 구체성이다. 구체성은 교육과정 진술방식과 관련된 문제로 실천이 용이하도록 상세하게 진술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즉, 구체성은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육적 의도와 내용이 실행 참여자들에 의해 쉽게 이해되도록 교육과정이 상세하게 진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과정 내용은 성취기준이고 학습목표이다. 어떤 '내용'을, 어떤'조건'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물론 교육과정이 상세할수록 교사의 자율성이 축소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겠으나, 의도한 바를 정확하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교육과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추상적인 진술은 교육과정 개발자들과 실행 참가자들과의 의사소통을 어렵게 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교육과정 내용은 구체성의 측면에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를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표현되어야 한다.

2) 문학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문학교육 내용의 선정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04□□□_01□□□ 12. 7. 19. □□ 7:35 Page 114

될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문학교육 내용 선정을 위한 준거로는 학문적 요구, 심리적 요구, 사회적 요구, 교육적 요구, 학습 가능성의 문제, 개방성, 전이성 그리고 유용성을 들 수 있다.[20] 문학교육의 관점에서 내용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앞의 교육 일반 논리 외에 문학이라는 내적 논리를 생각해야 한다. 문학교육의 내용은 문학 작품, 배경 정보, 문학용어, 문학이론, 문화적 정보, 독자의 반응 등 다섯 가지 사항의 제약을 받는다. 한철우는 이들 각 영역 안에서 어느 것이 강조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과정 개발자들이 생각하는 교육적 견지에 의해 좌우된다고 보고 있다.[21]

그는 교과로서의 문학을 들여다보는 관점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① 문학을 습득되어야 할 지식으로 보는 관점

② 문학을 분석과 해석의 기술을 익히는데 필요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

③ 문학을 사회적 도덕적 발달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관점

①과 ③의 관점은 정전으로부터 작품을 선정하고, 작가 또는 작품의 사회적 도덕적 내용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텍스트의 분석이나 해석보다는 텍스트에 대한 지식이나 선호도에 중점을 두어 교수 학습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②의 관점은 신비평, 독자 반응 등의 방식을 근저로 하는 것으로 문학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대한 논의를 텍스트의 관점, 학습자의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으로 정리하면서 문학교육 내용에 대해 재고해야할 점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그 동안의 문학교육이 기능 중신의 평가 체제와 잘 어울리면서 문학작품을 감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억해야할 학습의 대상으로 삼아온 텍스트 중심 이론의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문학교육 방법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텍스트와의 상호

20) 김창원, 「문학교육과정의 구성원리」, 『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1997, 117쪽.
21) 한철우, 「문학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대한 토론문」, 위의 책, 317~323쪽.

04□□□_01□□□ 12. 7. 19. □□ 7:35 Page 115

작용, 즉 독자와 작가의 상호작용이 문학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둘째, 사회 문화론적 접근의 교육과정에서는 문학교육의 목적이 사회 문화를 익힘으로써 그 사회 문화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문학은 당대 사회의 사고 체계와 관습 등 문화의 총체적 집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를 전제로 할 때 문학교육은 결국 작가와 작품의 평가 및 선정의 문제와 부딪히게 되는데 문학교육을 위한 정전 선정의 문제는 문학의 사회 문화적 본질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교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떠한 지식과 활동을 선정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가르쳐야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학습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각 영역들의 내용 요소가 조화롭게 배열될 수 있도록 하여 학습 동기를 자극하고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마땅히 문학적 문화의 형성과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을 목표로 국어과의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언어의 본질은 결국 '사고'에 있으므로 언어사용의 기능적이고 표면적인 차이를 강조하는 교육보다는 의미를 나누고 생각을 주고받는 상호 소통 능력의 신장이야말로 올바른 국어교육의 방향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문학적 문화의 형성과 창의적 사고력의 신장을 국어과의 교육목표로 삼고자 한다면 '문학' 영역은 현재와 같이 다른 영역과 나란히 일직선으로 늘어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국어교육의 하위 요소를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바탕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문학 영역이 국어 활동 속에서 자리잡기 위해서는 국어사용의 체계 속에서 의미 있는 요소들을 선별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어사용 기능영역의 내용은 지나치게 기능적이라 실제적인 국어사용 상황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식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언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또

04□□□_01□□□ 12. 7. 19. □□ 7:35 Page 116

한 교육과정 해설서에 해당 내용(목표, 성취 기준)을 도달했을 때 학생들이 산출할 수 있는 결과물을 수행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해 줌으로써 교과서의 제작 방향 및 교수학습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 다음 국어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문학텍스트의 경우 구체적인 작품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학교육의 내용요소 구성 범주' 역시 학습내용이 '문학 요소'에 대한 내용임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학년 간 내용 배열에 있어서 위계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문학교육과정에서는 문학적 글쓰기를 쓰기 영역의 한 항목으로 두고, 문학적 반응을 학년 수준에 맞게 배열하여 계열성을 확보해야하고, 내용의 범위를 심화 확장하는 방법으로 내용의 학년 간 계열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향후 우리 문학 교육과정 설계에 의미 있는 시사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학 영역을 국어과 전체 속에 통합할 때면 문학의 역할이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문학의 특수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문학교육과정의 내용체계를 연구하면서 우리나라의 내용 체계가 얼마나 관념적인가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문학교육과정의 '읽기' 영역에 '문학적 감응과 분석'이라는 영역을 포함시킴으로써 문학교육을 한층 강화하고 영역 구분과 상관없이 언어의 기능적 측면에서 문학교육의 내용을 구성하려는 노력을 통하여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의 문학 영역 교육과정의 분석, 검토를 통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분석과 향후 내용 구성의 방향에 대한 고찰을 목적으로

04□□□_01□□□ 12. 7. 19. □□ 7:35 Page 117

하였다.

이를 위하여 2장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과 2007 개정 국어과교육과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2007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해보았다. 특히,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 내용 중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중학교 7, 8, 9학년과 고등학교 10학년,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 속해 있는 11, 12학년의 문학교육과정의 내용을 중심으로 중등학교 문학교육과정에서 강조하고 있는 교육목표와 성격, 내용에 대해서 고찰하였고, 다음으로 내용체계 및 각 항목별 내용요소를 표로 재구성하여 학년별 내용 요소를 중점적으로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3장에서는 2장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학교육내용 구성의 체계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교육내용의 구성방향을 제시하였고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방향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여 보았다.

교육과정은 단순한 커리큘럼이 아니다.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중요하고 시급한 해결 과제이며, 교육을 둘러싼 모든 논의의 중심부에 있는 만큼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는 문학교육학의 학적 체계화를 추구하는 총체적 이론화 작업과 관련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어교육의 하위 요소를 어떻게 나누든지 간에 문학교육은 국어교육의 바탕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 문학 영역이 국어 활동 속에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어사용의 체계 속에서 의미 있는 요소들을 선별하고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의 국어사용 기능영역의 내용은 지나치게 기능적이라 실제적인 국어사용 상황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지식기능'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언어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교육과정 해설서에 해당 내용(목표, 성취 기준)을 도달했을 때 학생들이 산출할 수 있는 결과물을 수행의 맥락에서 구체적으로 예시해 줌으로써 교과서의 제작 방향 및 교

04□□□_01□□□ 12. 7. 19. □□ 7:35 Page 118

수 · 학습의 수준과 범위에 대한 교사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데 차후 문학영역의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문학텍스트의 경우 구체적인 작품의 목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학교육의 내용요소 구성 범주' 역시 학습내용이 '문학 요소'에 대한 내용임을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학년 간 내용 배열에 있어서 위계상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문학 영역을 국어과 전체 속에 통합할 때면 문학의 역할이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문학의 특수성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어과 교육과정의 지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교육과정은 이제 국가 · 사회적 변화에 대한 학교 교육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시 · 부분 교육과정 개정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러한 개정 방식은 교육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방식으로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고 학교 현장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국어과 교육과정의 지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04□□□_01□□□ 12. 7. 19. □□ 7:35 Page 119

참고문헌

기본서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년 개정 교육과정 총론 및 국어과 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2. 국어, 교육부 고시』.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7-15호, 2001.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Ⅱ)-국어 도덕, 사회』, 교육인적자원부,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단행본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제5판)』, 삼지원, 2007.

김대행 외, 『문학 교육 원론』, 서울 대학교 출판부, 2000.

김인환, 『문학교육론』, 평민사, 1979.

김중신, 『문학교육의 이해』, 태학사, 1997.

김창원 외, 『문학영역 및 과목의 교육 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교원대학교, 교과교육공동연구소, 2003.

박인기, 『문학교육과정의 구조와 이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우한용 외, 『문학교육 과정론』, 삼지원, 1997.

이대규, 『문학교육과 수용론』, 이회문화사, 1998.

이재기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 보고RRC-2005-3, 2005.

이재기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수정·보완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6.

이인제 외,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 시안 공청회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이인제 외, 『국어과 교육과정개정(시안) 연구 개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5.

논문

고용우, 「새 문학 교육과정 검토」, 우리말교육현장연구, 2007.

김경자 외, 「창의성 증진을 위한 국어과 교육내용의 내용구성과 단원 개발 방안」, 『이

04□□□_01□□□ 12. 7. 19. □□ 7:35 Page 120

화여자대학교 교육과학 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2003

김대행,「국어과 교육과정 분석과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교육과정연구』 제2호, 1996.

김대행,「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문제와 개선 방향」, 한국교육과정학회 학술세미나, 1996.

김정우,「고등학교 문학 과목 교육과정의 내용과 구조」,『국어교육』 131호, 2010.

김중신,「서사 장르의 교육과정 개정에 관한 제언」,『문학교육학』 제20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6.

김창원,「문학교육과정의 구성원리」,『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1997.

우한용,「문학 교육과정 개정의 방향 탐색」,『문학교육학』 제20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유영희,「2007 개정 교육과정 '문학' 영역의 특성 및 지향점」,『청어람어문교육』 36집, 2007.

이성영,「2007 개정 국어교육과정의 특성과 문제점」,『우리말교육현장연구 창간호』, 우리말교육현장학회, 2009.

정혜승,「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비판적 분석과 대안 모색- 내용을 중심으로」,『국어교육학연구』 제23집, 국어교육학회, 2007.

최인자,「학습자의 발달 특성에 기반한 서사 텍스트 선정 원리 연구」,『문학교육학』 제23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7.

최지현,「국어과교육과정과 문학교육과정」,『문학교육학』 제18호, 한국문학교육학회, 2005.

한철우,「문학교육과정의 내용체계에 대한 토론문」,『문학교육과정론』, 삼지원, 1997.

04□□□_01□□□ 12. 7. 19. □□ 7:35 Page 121

Abstract

A Study on contents selection and arrangements for Literary education

Yu, Ji H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 national-level curriculum and to consider a direction to construct of contents. In order to achieve this, overall features of the 2007 Revised Korean curriculum are examined and analyzed by comparing with contents of the 7th curriculum and the 2007 Revised Korean curriculum, and accompanying drawbacks are pointed out in chapter 2. In chapter 3, and In chapter4, based on the discussions in the chapter 2 and 3. In particular, objective,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of education are studied first and contents of each are reorganized into a table also elements of contents in each grade are compared and reviewed. Mainly study tries to examine problems with literature realm of the 2007 Revised Korean curriculum of Korea focusing on features, objective, content structure, and content elements each grade, and to discuss improvements.

To summarize the contents, what knowledge and activity will be selected and in what method it must be instructed must be clarified in order to achieve objectives of courses. Moreover, study contents and method should be suggested in details and each field should arrange

04□□□_01□□□ 12. 7. 19. □□ 7:35 Page 122

content elements harmoniously so that stimulate motivation for studying and obtain good results. A curriculum of Korean education department must be reconstructed to create literary culture and to increase creative thinking skills. Developing interactive communication skill that shares meaning and exchanges thoughts is the right direction of Korean education. If the objective is to creating literary culture and development of creative thinking skills as the educational purpose of Korean department in center of this change, then 'literature' realm should not be arranged in parallel with other realms as now. A literature education must be the foundation and center of Korean education regardless of how subordinate elements of Korean education is divided. Efforts to select meaningful factors and to reconstitute them from system of using Korean are needed in order for literature realm to settle in Korean activities. An education course is not just a simple curriculum. But an important task to be urgently solved for development of education, and as it is in the center of all discussions surrounding education, a study on education courses must be an object of continuous interest in relation to a general theorization process.

주제어 : 문학교육(Literary education), 문학교육과정(Literature Curriculum), 교육내용(contents of education), 내용요소(elements of contents), 선정과 구성(selection and arrangements)

논문 접수일 2012. 05. 04.
논문 심사일 2012. 05. 25.
게재 확정일 2012. 06. 08.